



생각이 크는 인문학_사고력을 키우는 생각 노트

퍼낸곳 (주)북이십일 을파소

출판등록 2000년 5월 6일 제10-1965호

주소 (우 413-756)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회동길 201

연락처 031-955-2721(영업팀) 031-955-2174(기획편집) 팩스 031-955-2151

이메일 book21@book21.co.kr 홈페이지 www.book21.com

[비매품] ISBN 978-89-509-6697-3 43100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주)북이십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공부



공부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은 없을까?



1장

공부를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코미디 공연에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어 보거나 여러 코미디 프로그램을 찾아보면서 남을 웃기는 법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방법을 알기 위해 코미디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정리해 놓은 책을 읽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코미디에 관해 ‘공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잘 하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부모님은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이 안전한지, 음식 재료와 조리법은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공부를 하지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산다면 모를까 누구나 아무리 작은 일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바로 그 배우고 익히는 행위가 공부이지요.

생각해보기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

.....

.....

.....

.....

.....

.....

.....

.....

.....

.....

2장

공부를 해도 잘 모르는 것은 왜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스스로 문제의 근본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대화와 토론 방식을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산파는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산파술은 산파처럼 옳은 생각을 스스로 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이라는 뜻이지요. 이 대화법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 생각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치는 것을 다른 사람과 서로 묻고 답하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도 접하게 되고, 내가 그냥 지나쳐 버렸던 부분도 발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모르던 것을 알게 된 경험이 있나요? 산파술의 다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양에서는 글귀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공부법 중 하나였습니다. 글귀를 암송하는 것은 글이 담고 있는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스승은 글을 외우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그 글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해 주지 않았고, 더 나아가 외운 부분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니다. 책의 내용을 토론하려면 기본적으로 어제까지 배운 내용은 거의 암기하고 있어야 하고 왜 그런가 하는 의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생각해보기**

이렇듯 과거에는 암송, 의문, 토론이 중요한 공부법이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는 공부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

.....

.....

.....

.....

.....

.....

.....

.....

.....



4장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공부가 지겹다는 생각이 들면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라는 속담으로 표현합니다. 이 속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스스로 물을 먹는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자기 목이 마를 때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입니다.



생각해보기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문제를 하나 정하고 계속해서 왜 그런지 묻고 답을 찾아보세요. 답을 찾아낸 결과와 끝까지 찾지 못한 내용을 정리하는 궁금증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2 아름다움



못생긴 백설공주도
왕자의 키스를 받았을까?



1장

우리는 왜 아름다움에 끌릴까요?

어떤 악역 전문 배우는 험상궂게 생긴 자신의 외모 때문에 평소에도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외모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입니다. 이런 편견은 아주 다양한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탤런트나 배우같이 외모가 중요한 직업뿐만 아니라 가수나 아나운서같이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외모는 필수적인 것처럼 되었죠. 심지어 정치인을 뽑을 때에도 외모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보기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외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모로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잘생긴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험상궂게 생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힌트 동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모두 예쁘게 생기고 악역은 무섭게 생겼어요.

2장

왜 주인공들은 모두 멋지고 예쁜 걸까요?

서양의 대표 미인인 클레오파트라라는 기원전 51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이집트의 통치자였습니다. 로마의 장군 카이사르와 결혼했다가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된 이후 카이사르의 추종자인 안토니우스를 남편으로 맞아 로마와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군대는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해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이집트 왕가는 멸망하고 맙니다. 반면 로마는 이 전쟁의 승리로 전성기를 맞이하지요. 이를 두고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파스칼은 “만일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지도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생각해보기

클레오파트라가 매력적이지 않았다면 이집트와 로마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움이 주관적 느낌이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파스칼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유행일 뿐이라고 말했고, 스피노자는 만약 우리가 지금과 다르다면 추한 것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것을 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흠스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 교육, 경험 기억, 상상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기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동일한 대상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동일한 사물에 대해 다른 사람과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랐던 경험이 있나요? 왜 그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힌트 같이 본 영화나 책에 대해 친구와 평가를 다르게 했던 적은 없나요?

5장

예술 작품은 모두 아름다워야 하나요?

괴테는 아름다움이 예술의 궁극적 원리이며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유명한 미술가였던 마르셀 뒤샹은 미국 뉴욕의 한 작품 공모전에 <샘>이라는 제목으로 남자용 소변기를 사다가 제출했습니다. 가명으로요. 당연히 이 작품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뒤샹은 이후 “예술이란 꼭 무엇을 새로 그리거나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변기는 현재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지요.

생각해보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마르셀 뒤샹의 <샘>은 예술 작품인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장

동물들도 아름다움을 알까요?

어느 날 과학자는 아프리카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인 석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 속에서 파파야 한 묶음을 들고 침팬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지는 해를 발견한 침팬지는 쥐고 있던 파파야를 슬그머니 내려놓더니 아름답게 불타오르는 노을을 15분 동안이나 물끄러미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사라지자 터덜터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에 내려놓은 파파야는 까맣게 익은 채 말이죠.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침팬지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먹을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고 있던 건 아닐까요?



생각해보기

여러분도 이 침팬지처럼 배고픔이나 졸음 등의 본능을 잊을 만큼 어떤 것에 몰두한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경험인가요, 그리고 왜 그랬나요?

7장

왜 여자에게는 예쁘다, 남자에게는 멋있다고 할까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관련된 말들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같은 반 남자애에게 “너 참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을지도 모르고, 그 말을 들은 친구의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지요. 이처럼 여자들과 남자들이 원하는 아름다움의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생각해보기

다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를 남자에게 붙이는 것과 여자에게 붙이는 것으로 나눠 보고, 왜 그렇게 구분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예쁘다	우아하다	멋지다	잘생겼다	앙증맞다
세련됐다	웅장하다	귀엽다	씩씩하다	우람하다

남자:

여자:

이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는 아름다움의 여러 가지 성질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만일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이 한 가지라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는 사물이 가진 여러 가지 종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떤 것은 색깔이 진해서 아름답고, 어떤 것은 색깔이 연해서 아름답습니다. 어떤 것은 커서 아름답고 또 어떤 것은 작아서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수많은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내가 가진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10가지 이상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도 설명해 보세요.

- | | |
|---|---|
| ① | ⑥ |
| ② | ⑦ |
| ③ | ⑧ |
| ④ | ⑨ |
| ⑤ | ⑩ |

이유 :

3 부(富)

생각이
크는
인문학

왜 놀부와 스크루지를
나쁘다고 할까?



1장

왜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생길까요?

세상에는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TV나 신문 등의 뉴스나 드라마 등에도 엄청난 부자가 등장하죠.



생각해보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요?



생각해보기

여러분은 그가 부러운가요? 부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부럽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주 옛날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부지런함의 차이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돈을 아낄 줄 모르기 때문이고, 반면에 부자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생활 태도로 절약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흥부는 가난하지만 게으르지 않아요. 반면 부자인 놀부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은 이야기 속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생각해보기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5가지 이상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과 가장 옳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도 선택해 보세요.

①

②

③

④

⑤

가장 쉬운 방법과 그 이유:

가장 옳은 방법과 그 이유:



생각해보기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먹을 수 있고, 재미있는 게임도 실키트 하고, 예쁜 옷도 사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한 이유:

3장

부자가 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옛날에 돈은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식품을 만들 수 있는 '조개껍데기'나 먹을 수 있는 '쌀', 옷감으로 쓸 수 있는 '베'이거나 예쁜 반지나 목걸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귀금속인 '금'과 '은' 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예쁘지도 않고 돈이 아니라면 다른 쓸모는 전혀 없는 동전이나 지폐지요.



생각해보기

돈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오늘날 돈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해 보세요.

이유:

좋은 점:

나쁜 점:

4장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먼 옛날 고대 그리스에 미다스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노인을 구해 주었는데 그 노인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 실레노스였고, 디오니소스는 미다스 왕에게 보답하기 위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미다스 왕은 자신의 손이 닿는 것은 모두 황금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미다스 왕의 손은 정말로 황금을 만드는 손이 되었습니다. 미다스 왕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소원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되었죠. 배가 고파 빵을 먹으려 하면 빵이 딱딱한 금덩어리가 되었고, 포도주는 금이 녹은 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마저도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생명을 잃고 황금상이 되어 버렸죠. 이제 그는 자신의 손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생각해보기

이 이야기를 읽고도 여전히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5장

경제학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3명의 친구들이 함께 피자를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피자 값이 15,000원이 라면 5,000원씩 세 명이 나누어 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 친구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두 친구 중 한 친구가 10,000원을 냈고, 다른 한 친구가 5,000원을 내서 다행히 피자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포크를 들고 맛있게 먹으려는데 갑자기 10,000원을 낸 친구가 돈을 내지 않은 친구를 확 밀면서 “너는 돈을 안 냈으니까 먹으면 안 되잖아!”라고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해보기

돈을 내지 못한 친구는 피자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비록 돈을 내지 못했지만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날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화 시대란 한 마디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11년 태국에서 큰 홍수가 났는데,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우리나라의 컴퓨터 가격이 올랐습니다. 태국의 공장에서 컴퓨터 부품이 생산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오늘날 세계는 각각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어요.

생각해보기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사례를 찾아보세요.

.....

.....

.....

.....

.....

.....

.....

.....

.....

.....

.....

6장

부(富)를 골고루 나눠 가질 수는 없을까요?

19세기 프랑스 사상가 폴 라파르그가 살던 시대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3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해요. 모자 공장에서 일하던 ‘메리 앤 워클리’라는 노동자는 매일 평균 16시간을 일해야 했고, 성수기에는 30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하죠. 결국 메리는 스무 살의 나이에 병이 아니라 과로로 죽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라파르그는 이러한 고된 노동이 사실은 일의 분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고된 노동은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빵을 빼앗는”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로 굶어 죽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으로 죽어 가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지요.

생각해보기

라파르그가 제안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여러분이라면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세금이 많다며 푸념하는 소리를 들어 본 적 있나요? 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과자를 사 먹거나, 피자를 시켜 먹을 때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요.

생각해보기

세금은 왜 내야 할까요? 세금이 쓰이는 곳을 찾아봅시다.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세금이 쓰이는 곳:

4 도덕

생각이 크는 인문학

착하게 살면 흥부처럼
복을 받을까?





아주 옛날 리디아라는 나라에 착하고 성실한 '기게스'라는 목동이 있었어요. 기게스는 어느 날 땅이 갈라진 틈으로 생긴 동굴에서 거인의 해골을 발견했고, 거인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금반지를 빼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반지는 투명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신기한 반지였어요. 기게스는 이 반지를 이용해 몰래 왕궁에 들어가 왕비를 유혹하고, 왕을 암살한 후 왕위에 올랐지요. 만약 반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주 착하고 성실한 목동으로 평생 열심히 살았을 테지요.

생각해보기

기게스는 반지를 갖기 전과 가진 후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이 더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기게스의 반지처럼 무슨 일을 해도 들키지 않는 물건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거지처럼 살았어요. 집도 없이 낡은 나무통을 집으로 삼아 잠을 잤고, 옷도 한 벌밖에 없어 햇볕이 좋은 날에는 옷을 벗어 이를 잠곤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알렉산드로스대왕이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디오게네스를 찾아 왔어요. 알렉산드로스대왕을 거들떠도 보지 않던 디오게네스는 대왕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무 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알렉산드로스대왕은 “내가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더라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생각해보기

여러분은 정복자로서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지만 매일매일 목숨을 건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알렉산드로스대왕과 거지처럼 살지만 부끄러움 없이 자유롭게 사는 디오게네스 중에 어떤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두 사람 중 한 명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할 건가요?

2장

어떤 행동이 착한 행동일까요?

옛날 중국 청나라에는 황제에 대한 특별한 인사법이 있었어요.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라는 것으로 큰 절을 세 번 하고 머리를 아홉 번 조아리는 인사법이지요.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런 인사법을 비굴한 행동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영국의 외교관은 이 인사법을 거부하고, 영국식으로 무릎을 반쯤 굽혀서 인사했지요. 이러한 행동은 중국 황제를 크게 화나게 했고, 결국 영국 외교관은 궁에서 쫓겨났지요.

생각해보기

여러분이 영국의 외교관이라면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또 중국의 황제였다면 영국의 외교관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요? 영국의 외교관과 중국의 황제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생각해 보세요.

영국 외교관의 입장:

중국 황제의 입장:



물건은 있는데 주인이 없는 가게가 있다면 이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라도 가게에 아무도 없으면 순간적으로 그냥 가져갈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양심을 모른 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한 마을에는 주인이 지키지 않는 가게가 무려 9년째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장님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 물건을 사들여 가격표를 크게 써서 진열하고는 옆에다 돈을 넣는 통과 바구니를 놓아두고 알아서 물건 값을 지불하게 했다고 하네요.

생각해보기

이 가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가게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보고, 그렇게 이름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가게 이름:

그 이유:

4장

법은 도덕의 최소한일까요?

지금으로선 기가 막히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경찰관이 바리깡과 자를 들고 다니면서 남자들의 머리 길이와 여자들의 치마 길이를 재던 시절이 있었어요. 파마머리나 긴 머리의 남자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었죠. 무릎에서 17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은 경찰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이틀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생각해보기

오늘날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처럼 옳지 않은 법은 없어져야겠지요. 그렇다면 옳지 않은 법은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또 누가 없애야 할까요?

옳지 않은 법을 없애는 방법:

법을 없앨 자격이 있는 사람:

도덕, 법 등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지요. 법과 도덕같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키기로 약속한 행동 규칙을 통틀어 ‘규범(規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한 규범은 그 종류가 아주 많지만 크게 ‘관습’, ‘도덕’, ‘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관습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되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된 규범. 결혼식이나 장례식, 제사 등이 있다.

도덕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행동.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관습이나 예절과 달리, 도덕은 사회가 달라도 내용이 비슷하다. 어느 사회에서 살고 있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는 비슷하기 때문.

법 사회, 특히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지키도록 하는 사회 규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법은 도덕규범 중에서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정해 둔 것이다. 도덕규범 중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도덕의 최소한’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도덕규범과는 상관없지만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둔 것도 있다.



🔍 **생각해보기**

관습, 도덕, 법에 대한 설명을 읽고 아래의 규범을 관습, 도덕, 법으로 나누어 보세요. (중복 답변도 가능)

	관습	도덕	법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세수하기	○	×	×
어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기	○	○	×
지각하지 않기			
떠들지 않기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기			
세금 내기			
군대에 가기			
웨딩드레스를 입고 치르는 우리나라의 결혼식			
신부와 신랑이 전통 혼례복을 입고 부모님께 절을 하는 폐백			
약속 지키기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훔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길을 건너서는 안 된다			



소설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나 영화로도 잘 알려진 <레미제라블>에는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장발장은 빵을 훔치고, 탈옥한 죄로 무려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지요. 법을 어겨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가 도둑질을 한 이유를 생각하면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장발장이 빵을 훔친 건 굶어 죽어가는 어린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였어요. 오늘날에는 만약 조카들을 굶어 죽도록 방치한다면 그런 삼촌은 법적으로 처벌받지요.

물론 빵을 훔치는 방법으로 조카들을 돌보려 했다는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어린 조카들을 방치한 채 긴 시간 감옥살이를 하게 하는 처벌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생각해보기

굶주리는 조카들을 돌보기 위해 빵을 훔친 것이니 용서해 줘야 한다고 생각 하나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둑질을 한 것은 분명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처벌과 용서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착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인 흥부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착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돈은 벌지 않고 남 돕는 일에만 열심이 있었다고 형 놀부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나고 말았죠. 남이 버린 허름한 집에 간신히 들어가 살았는데, 집이 너무 낡아 비가 새고, 밤에는 별이 보이는 집이었어요. 끼니때가 되어도 밥을 먹기보다 굶는 일이 더 많았지요. 흥부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자식들까지 배를 곯아야 했어요.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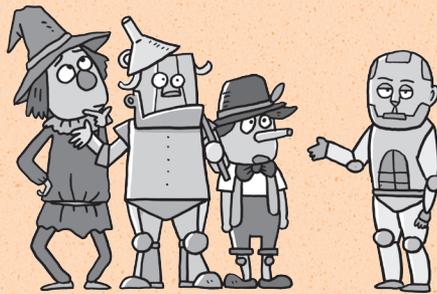
이런 흥부의 모습을 보면 착하게 산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고민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흥부처럼 살아야 할까요?



5 마음



허수아비와 로봇도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1장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을까요?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에는 인간이 되고 싶은 앤드류라는 로봇이 등장합니다. 겉모습조차 최고의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 인간과 같아진 앤드류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인간임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다음은 재판관과 앤드류의 대화 내용입니다.

재판관 앤드류, 당신은 자신을 인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소. 그런데 당신이 아무리 인간과 닮았다 해도 당신에게 인간의 유전자가 없소. 당신은 다른 생명처럼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인조인간이오.

앤드류 유전자를 가진 진짜 인간들도 제가 만든 인공장기를 달고 있습니다. 재판관님의 신장도 제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재판관님의 신체 일부도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재판관 일부는 그렇지소.

앤드류 저도 일부는 인간입니다.

재판관 어디 말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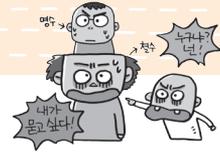
앤드류 마음입니다.

재판관 그럼, 두뇌는?

앤드류 사실 아직은 인공 전자두뇌입니다.

재판관 바로 그 전자두뇌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지요.

앤드류 맞습니다.



재판관 사람들은 죽지 않는 로봇은 인정해도 죽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킬 것이요. 안됐지만 앤드류 당신을 인간이라 인정할 수 없소. 이제 판결을 내리겠소. 본 법정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앤드류 마틴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기계에 불과하오.

생각해보기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할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

.....

.....

.....

.....

.....

.....

.....

.....

.....

.....

.....

.....

.....

.....

.....

.....

2장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나요?

내 몸의 상태는 직접 혹은 거울을 통해서 보거나 손으로 더듬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각이나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외형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은 외모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없어서 감각으로는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들은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안을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내성’이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철학자들은 마음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내성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마음을 연구하려면 가만히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에 따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성의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나요?

생각해보기

과학자나 철학자가 아니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나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얼마나 효과적이고 정확한가요?



생각과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과 모습 중에서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생각해보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한 사례를 생각해 보고 어떤 경우가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multipl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과학자들에 따르면 신체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듯이 인간의 마음도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마자 스스로 살 수 있는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의 아기는 태어나 스스로 걸으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먹이를 구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일 부모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나갈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마음의 여러 부분은 인류의 생존을 돕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한 진화론자라면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7장

마음은 무엇인가요?

‘세티’라 불리는 지구외문명탐사계획은 우주에 인간과 같은 지적인 존재가 얼마나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세티에서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적인 외계 생명체가 우주에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하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begin{aligned} & \text{은하계에서 전파를 사용하는 지구 외 지적인 생명체의 수} \\ & = \textcircled{1} \times \textcircled{2} \times \textcircled{3} \times \textcircled{4} \times \textcircled{5} \times \textcircled{6} \times \textcircled{7} \end{aligned}$$

- ① 은하계에 존재하는 별의 수
- ②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별의 비율
- ③ 각 태양계당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의 수
- ④ 그중 생명체가 출현하는 행성의 비율
- ⑤ 그중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출현하는 행성의 비율
- ⑥ 다른 세계와 무선통신을 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지적인 사회의 비율
- ⑦ 그 기술 문명이 현재 존속할 가능성

생각해보기

여러분은 우주에 인간과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얼마나 존재할 것 같은가요?
과학적으로 추측해 보세요.



6 역사



왜 역사 공부가
중요하다고 할까?



1장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의 기본은 과거의 기록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적어놓은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특정한 사건과 인물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역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 자체가 곧 역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기록은 역사가의 눈을 통과해야 비로소 역사가 됩니다. 즉 과거의 진실을 선명하게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로 역사가에 의해 선택되어야만 역사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기

천재 과학자가 드디어 과거로 날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타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시대로 돌아가 볼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더 이상 역사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리고 과거의 수많은 기록물들은 더 이상 역사의 진실을 알려줄 수 없을까요?

2장

어떤 사건이 역사로 남을까요?

어려서부터 위인전에 익숙한 우리는 역사를 왕이나 귀족, 영웅호걸과 같은 소수의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특정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그 속에는 비록 기록을 남기지 못했으나 엄연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의 흔적을 찾고 그들과 관련된 사건을 찾음으로써 잊힌 역사를 복원하기도 합니다. 평범하지만 시대를 능동적으로 살고자 했던 농민, 노동자, 여성, 소수 민족 등이 역사가들에게 주목받고 있지요.



생각해보기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정말 찾고 싶은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 인물이라면 당시 시대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요?



18세기 조선의 화가 김홍도는 서민들의 다양한 삶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모 내기하는 사람들, 대장간에서 담금질하는 남자들, 빨래하는 아낙네들, 씨름 하는 이들의 모습 등…… 만약 그 시대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기록을 서민 스스로 남겼거나 역사가들이 생생하게 서술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피지배층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드물어요.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피지배층으로서 삶을 살았지만 정작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도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생각해보기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충분히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의 하루 일과와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요?

3장

역사를 한눈에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역사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생각해 낸 방식이 바로 '시대구분'이라는 것입니다. 단, 이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중 '고대-중세-근대'의 삼분법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주로 서양사를 파악할 때 쓰는 이 삼분법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면서도, 어느 시기부터를 고대와 중세, 중세와 근대로 나눌 것이냐에 따라 역사가들의 의견도 제각각이지요. 또한 이러한 시대 구분 방식 속에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돌고 도는 것이냐는 관점도 숨겨져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시대를 구분하여 바라보면 좋을까요? 왕조별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면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오늘날까지의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4장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에서도 역사가 주는 '교훈'이 대표적 이유이지요. 역사를 통해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를 현재와 미래의 어느 순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성공의 사례는 앞으로 무언가를 할 때 매우 큰 교훈이 될 것이며, 실패의 사례는 그것 자체로도 또한 교훈이 되어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하게 되지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 개인은 물론, 한 사회, 한 국가 또는 지구촌 전체가 한 걸음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되기도 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역사를 거울삼아 어리석은 전쟁을 피하고, 다른 국가와의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역사 속 사건이 여러분에게 던져 준 가장 큰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역사 공부는 연도, 인물, 사건과 문물, 제도 등 외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도와 인물들은 당시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암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에는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로 빗살무늬 토기를 들고 있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에 사용되었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는 점을 외우는 것과 빗살무늬 토기로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빗살무늬 토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친구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 나에 대한 정보를 외워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왜 좋아하게 되었고, 싫어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생각해보기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직접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한 명 선택해서 친구에게 설명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외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5장

역사 교과서는 왜 지루할까요?

역사 교과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기록, 유물, 유적 등에 대하여 역사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추려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는 정답이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새로운 기록과 유물 등이 발견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역사 교과서는 위인전이나 동화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과학적인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설명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야기가 주는 재미는 떨어지지요. 그렇다면 이런 교과서의 서술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시대라는 거대한 숲을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이해하여 그 상황 속에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보기

역사 교과서에서 개인 한 사람의 업적만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그 시대의 여러 요소들을 함께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교과서에서 찾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장

우리 역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왜 우리는 반드시 한국사를 배워야 할까요? 우선 우리의 역사를 스스로 모른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 제대로 소개할 수 없겠지요. 더 나아가 한국사를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이 쌓이지 않는다면, 과거 수많은 전쟁과 침략 그리고 일제의 부당한 식민 지배 속에서도 우리 민족과 국가를 지켜 내야 했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사를 제대로 배우고 자신만의 역사의식을 형성하여 나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같은 한국사를 배웠어도 사람마다 다른 관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역사관을 어떻게 나누고 이해하며 고쳐 나갈 수 있을까요?